

# 제8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대상에 '장용진 회장'

## 한상-모국 기업인 상생 파트너십 대회도

완도군은 28일 제8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에서 미국 글로벌 뷰티기업 키스그룹 장용진 회장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여수 디오션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김덕룡 이사장과 신우철 완도군수, 허경희 완도군의회 의장, 최경주 골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장용진 회장이 장보고한상 어워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국회의장상에 이호덕 RS그룹 회장(인도네시아), 문체부장관상에 정숙진 토클리소스인터내셔널 대표(UAE), 농림부장관상에 윤덕창 고려무역 회장(싱가포르), 산자부장관상에 천주환 CTK

AISIA RUBBER그룹 회장(필리핀), 해수부장관상에 엄광철 선성홀딩스 회장(중국) 등이 각각 수상했다.

특별 공로상(이사장상)은 황병구 코러스 오키드 회장(미국)이 수상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지금까지 17개국 총 4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완도군과 장한상 수상자들은 완도 농수산물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올해 베트남과 라오스 등에서 수산물 판촉전을 개최해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에 이어 제2회 장한상 수상자 창업 성공 스토리 감상문 공모전 시상식에는 강화중 인재원군과 압구정초교 김



제8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

/완도군 제공

리안 양이 국회 교육위원장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두 번째인 한상-모국 기업인 상생파트너십대회는 27~28일 전남도가 주관하는 수출 상담과 전시, 제품 설명회, 학동 세미나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진행

된다. 장보고한상 수상자 등 24명은 29일부터 30일까지 완도를 방문해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장보고기념관,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청해진 본영 등을 둘러본다.

/완도=이두식 기자

## 포토뉴스



남양군, (주)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 상호업무 협약 담양군이 지난 28일 담양군과 (주)태영티에스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태영티에스의 김춘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태영티에스는 소속 직원과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담양군 측에서는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진행했다.

/담양=조승자 기자



전남소방119 섬나희, 순천시에 동절기 이불 후원 순천시는 전남소방 119 섬나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 이불 20채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조준의 기자



코미디언 윤성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 광주 동구는 뉴진스님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미디언 윤성호 씨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 비전 품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광양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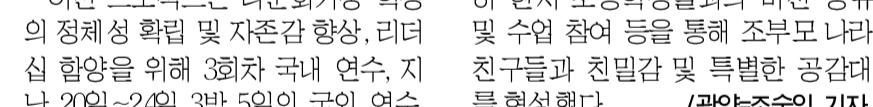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고영훈 주무관이 2023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실사에서 광역 자치단체 중 1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과 마파를 부상으로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고주무관은 자체 감사 활동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조직의 부조리와 비리 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어린이 보행 사고가 발생한 253건의 안전 시설을 시민·경찰과 함께 점검, 보강 조치하고 공공임대 주택에서 임대기준을 초과한 177명을 적발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나섰다.

고주무관은 자체 감사 활동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조직의 부조리와 비리 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어린이 보행 사고가 발생한 253건의 안전 시설을 시민·경찰과 함께 점검, 보강 조치하고 공공임대 주택에서 임대기준을 초과한 177명을 적발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나섰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고영훈 주무관이 2023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실사에서 광역 자치단체 중 1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과 마파를 부상으로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양교육지원청은 3박 5일간, 조부 모나라가 필리핀인 4~6학년 조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필리핀 국외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확립 및 자존감 향상, 리더십 향양을 위해 3회차 국내 연수, 지난 20일~24일 3박 5일의 국외 연수,

결과 공유회로 구성됐다. 필리핀의 역사 및 문화, 자연 탐방(리질 공원, 마닐라 대성당, 따일섬 등), 한국 기업 (KEPCO, HAE YOUNG) 방문, 조부모와의 만남, 필리핀 학교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지 조등학생들과의 비전 공유 및 수업 참여 등을 통해 조부모 나라 친구들과 친밀감 및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양=조준의 기자

## 순천로타리클럽, 김장김치 나눔 봉사

중앙동, 소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세대에 방문 전달



순천시는 국제로타리3610지구 순천로타리클럽에서 동절기를 맞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할 때 주변의 응원과 지원으로 힘을 낼 수 있었는데, 나도 이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현금 기부를 하게 됐다"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김치를 전달받은 어르신 한 분은 "날도 추워지고 몸이 불편해 김장을 먹을 때마다 맛이 좋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방문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기 위해 클럽 회원들은 직접 담근 김치 50박스를 지난 25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관내 소외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세대에 방문 전달하면서 동절기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안부도 살

이 밖에 5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로타리3610지구 순천로타리클럽은 매년 김장 봉사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순천=조준의 기자

## NH농협전남본부, 전남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기금 전달

### '꿈 실현금'·'꿈 실현 인생학교' 연계 장학사업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3~24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광주 내 교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제1회 광주 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일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총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중심으로 28개 수업 나눔, 30개 전시·체험 부스 등이 운영됐다.

중학생 1학년 80명과 고등학생 1학년 80명, 총 160명에게 전남미래교육재단의 중점 사업인 '꿈 실현금' 및 '꿈 실현 인생학교'에 사용된다.

'꿈 실현금'은 단순 현금만을 지급하는 일회성 장학금이 아닌, '꿈 실현 인생학교' 캠프 운영을 통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장학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남형 인재 육성 장학사업이다.

중학생 40명과 고등학생 40명을 최종 선정 후 내년 1월 중 전남도교육청 학생 교육원에서 4박5일 일정으로 '꿈 실현 인생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호 기자

## 돈보스코학교 '위(Wee)희망대상' 대상 수상 등학교 인사·아침 상담 등 심리 안정 차별화 프로젝트 인정



광주 돈보스코학교가 지난 24일 열린 제12회 '위(Wee)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위(Wee)\*프로젝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 우수 사례 및 프로그램을 발

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Wee) 프로젝트'는 위(Wee)클래스(학교)-위(Wee)센터(교육지원청)-위(Wee)스쿨(교육청)이 연계해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광주시교육청 지정 위(Wee)스쿨인 돈보스코학교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매일 등·하교 시간 교문에서 학생들을 인사로 마중·배웅하고, 출석 독려와 결식 해소를 위한 아침 상담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대상을 얻었다.

이 밖에도 돈보스코학교는 예방교육을 통한 자주감 회복 및 학업 중단 위기 사례를 맞춤형 상담, 존중 교육, 진로활동, 공동체 교육 등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 서구 5.2km의 기적, 나눔으로 실천

### '오~! 잇길 걷기대회' 600여만원 기탁...기족돌봄청년 지원



서구가 지난 11일 광주천 일대에서 진행한 '함께 서구, 오~! 잇길 걷기대회'의 모금액 600여 만원을 가족돌봄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서구는 '오(5)천원'을 지역 내 소외된 '이(2)웃'에게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걷기 대회를 개최해 주민 1000여 명이 마음을 보탰다.

특히 서구 주민 송순희씨는 "어릴 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주변의 응원과 지원으로 힘을 낼 수 있었는데, 나도 이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현금 기부를 하게 됐다"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우리의 이웃이 또 다른 이웃을 도우며 서로를 잊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지역의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